함평만~법성포
뭇 생명이 약동하는 풍요의 땅

계절의 변화는 이성이 아닌 감성이 먼저 알아차린다. 삭풍 대신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가슴이 부풀고 설렌다. 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고, 생기가 움트는 시점이다. 무안에서 함평을 거쳐 영광까지, 함평만과 그 북쪽의 해안은 이미 춘기(春氣)로 물씬했다. 드넓게 뻗은 갯벌과 황토로 뒤덮인 밭에는 부드러운 녹색 융단이 깔렸고, 오후나절의 햇볕은 따사로웠다.

사진 박창기 기자 · **글** 박상현 기자

Drive to the South for Enjoying Spring

함평만
바다를 끌어안고 갯벌을 보듬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일컬어지는 한반도의 남서쪽 해안에서 백미는 단연 무안과 함평 앞바다다. 손으로 지도를 모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해안선이 삐죽빼죽하다. 만과 반도가 얽혀 있고, 많은 섬이 점재한다. 특히 무안과 함평이 공유하는 함평만은 갯벌로 가득하다. 조수가 빚어낸 너른 진흙땅에서는 수많은 생물체가 평화로이 살아간다.

개발 논리에 매몰돼 있던 당시, 함평만 갯벌에서도 간척 사업을 벌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갯벌은 다행히 보존됐다. 갯벌 1㎡에는 약 4천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무안읍에서 현경면을 지나 해제반도로 가다 보면 신기한 광경이 눈길을 앗아간다. 폭이 400m 남짓한 육지의 좌우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 진도나 제부도에서 썰물 때 만들어지는 신비의 바닷길처럼 양쪽 바다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

해제면을 관통한 도로는 신안으로 이어진다. 지도, 솔섬, 사옥도를 경유해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까지 갈 수 있다. 섬 사이에 다리가 놓여 통행이 자유롭다. 하지만 함평만을 둘러보려면 서쪽의 신안이 아니라 해제반도의 북단인 도리포로 이동해야 한다. 함평, 영광이 마주 보이는 도리포는 함평만의 입구다.

도리포는 조용하고 한가로운 어촌이다.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모래 해변이 있지만 드나드는 길손이 그리 많지 않다. 이곳 역시 송곳처럼 튀어나온 뭍에 위치해 동쪽과 서쪽이 바다다. 그래서 물결 너머로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20년 전 인근에서 고려청자 630여 점이 발굴되기도 했는데, 유물은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있다.

도리포에서는 깨닫기 어렵지만, 남쪽으로 조금만 내달리면 함평만에 갯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리포와 7㎞ 떨어진 무안생태갯벌센터 앞은 바닷물이 보이지 않는 광막한 갯벌이다. 갯벌센터는 전시관과 캠핑장, 산책로 등이 갖춰진 갯벌 여행의 중심지다. 전시관에는 갯벌의 형성 과정과 가치를 가르쳐주는 갯벌생태관, 체험시설 위주로 꾸며진 갯벌탐사관, 갯벌이 한눈에 보이는 갯벌전망대가 마련돼 있다.

도립공원인 무안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로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됐고, 2008년에는 순천만에 이어 두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됐다. 함평만은 대해와 연결되는 길목인 도리포와 영광 향화도 선착장 사이의 너비가 2㎞가 되지 않을 만큼 좁다. 반면 만 안쪽은 훨씬 넓고 수심이 얕다. 퇴적물이 흘러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구를 둘러싼 검은 비단'인 무안갯벌은 수산생물의 산란지이자 낙지와 조개, 게의 서식처다. 개펄 아래 사는 저서생물을 잡아먹기 위해 새들도 무시로 찾아든다. 물론 인간도 갯가에서 먹을거리를 조달한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무안생태갯벌센터와 송계마을 등에서 생태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른 봄까지 무안갯벌에서는 석화와 감태가 난다. 갯벌센터 앞은 석화가 지천이다. 낙지 조형물을 통과해 멀찍

1 밭일을 하는 아낙. **2** 무안생태갯벌센터의 캠핑장. **3** 무안을 상징하는 낙지 조형물. **4** 월두마을의 감태.

1 무안생태갯벌센터에 설치된 망원경.
2 갯벌에서는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조류도 볼 수 있다. 3 갯벌 사이로 만들어진 물길.

이 서 있는 '바다헌장' 비석을 돌아가면 갯벌 중간에 석화가 자라는 바위가 늘어서 있다. 물이 빠지면 아낙들이 망태기와 날카로운 갈고리를 들고 채집에 나선다. 돌바닥에 붙어 있는 석화를 떼어내 껍데기를 가른 뒤 알맹이만 빼는 손놀림이 날래다. 왜소한 몸집에도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일하는 모습에서 고단함이 전해진다.

'단맛이 나는 해조류'를 의미하는 감태는 월두마을에 흔하다. 갯벌센터에서 직선거리로는 동쪽으로 약 7㎞ 지점에 있지만, 차로는 13㎞를 에워가야 도착하는 월두마을도 도리포처럼 작은 곶에 자리한다. 이곳은 초승달을 닮은 육지의 머리 부근에 해당돼 '월두'(月頭)라고 불린다. 부두 앞에는 무수한 조개껍데기가 나뒹굴고, 갯벌에는 군데군데 감태가 드러나 있다. 갈색 갯벌과 초록빛 감태가 선명한 색상의 대비를 이룬다.

차로 해제반도를 일주했다면 두 발로 걸어볼 필요도 있다. 함평만을 따라 '마을과 들녘', '들녘과 바다', '해변과 갯벌', '갯벌과 산' 등 네 가지 도보 여행길이 정비돼 있다. 각각의 코스는 10㎞ 내외이고,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중 갯벌센터에서 출발해 홀통해변에서 마무리하는 경로는 바다 내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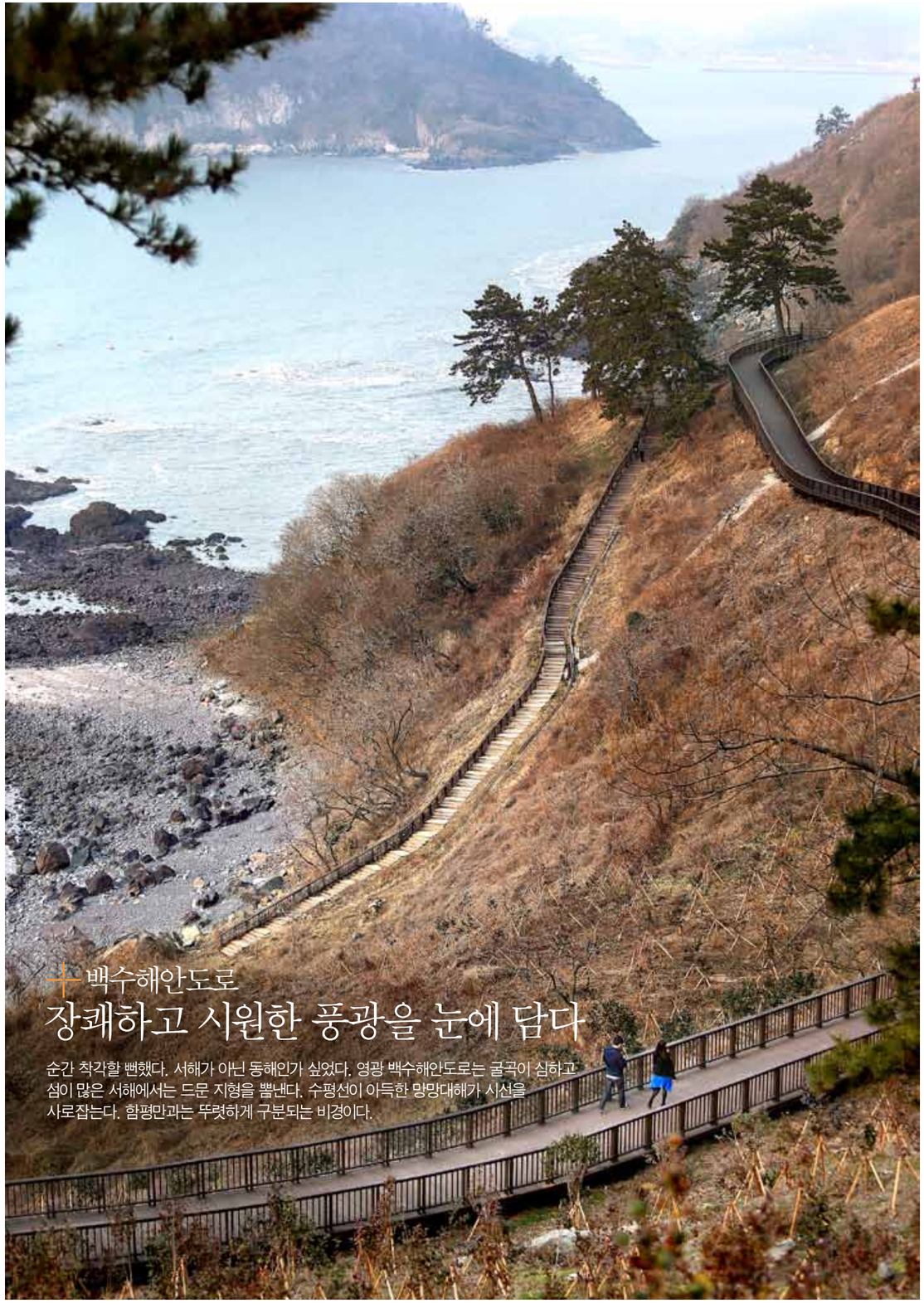
홀통해변은 함평만의 반대편 만에 있다. 무안 망운면과 운남면, 탄도, 선도, 고이도 같은 섬이 앞쪽을 첩첩하게 에워싸고 있다. 파도가 워낙 잔잔해 윈드서핑을 즐기기 좋다고 알려졌다. 해변에는 솔숲이 우거져 있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하는 횟집 몇 곳이 들어서 있다.

함평만은 해제반도 건너편의 함평 쪽과도 접한다. 함평에서는 돌머리해변부터 함평항까지 자동차로 주유할 수 있다. 함평의 해안도로는 해제반도보다 더 한적하다. 홀통해변처럼 송림과 해수욕장이 있는 돌머리해변에서 주포와 해수찜 건물을 지나쳐 석창리까지는 왕복 2차로 도로가 계속된다. 길가에 일렬로 박힌 돌이 개나리꽃처럼 샛노랗게 칠해져 화사한 기운이 감돈다.

석창리에서 좁은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면 간척의 흔적이 역력하다. 호젓한 도로 옆에 높다란 방조제가 있고, 둑 안쪽에는 직사각형으로 구획된 경작지가 있다. 철새가 날아오고 갈대가 하늘거리는 습지가 곳곳에 숨어 있다. 안악해변 남쪽의 월천방조제는 봄철에 벚꽃과 해당화가 피어 꽃구경을 할 수 있다. 아직은 유명세를 타지 않아 나들이객이 많지 않다.

둑길은 함평항 근처에서 끊긴다. 더 이상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운치가 없고 감흥이 일지 않는다. 함평항에서 2㎞ 떨어진 항화도 선착장은 공사가 한창이라 어수선하다. 맞은편 도리포를 잇는 다리와 전망 시설인 바다매체타워를 짓고 있다. 수년 뒤 함평만 여행의 기점은 항화도 선착장으로 바뀔 듯도 싶다.

4 무안생태갯벌센터 앞에는 반원형의 목재 산책로가 있다.
5, 6 갯벌에서 석화를 따는 주민들. 바위마다 석화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백수해안도로
장쾌하고 시원한 풍광을 눈에 담다

순간 착각할 뻔했다. 서해가 아닌 동해인가 싶었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섬이 많은 서해에서는 드문 지형을 뽐낸다. 수평선이 아득한 망망대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함평만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비경이다.

백수해안도로는 향화도 선착장이 있는 염산면과 굴비의 본고장인 법성포 사이에 자리한다. 설도항이 있는 염산면은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간척지가 많지만, 둑 너머는 광활한 갯벌이다. 법성포는 와탄천과 구암천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교차점에 있는데, 바다와 육지가 뒤엉켜 이뤄내는 지세가 꽤나 복잡하다. 하지만 백수해안도로는 두 지역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갯벌이 거의 없고, 해안선도 단조롭다. 그 대신 바로 옆에 높이 351m의 구수산이 솟아 있다.

길이 16.8㎞의 백수해안도로는 원불교 영산성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을 지나 모래미해변에 접어들어야 비로소 해안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든다. 모래미해변을 빠져나와 경사진 길을 오르면 갑자기 경관이 달라진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도로 아래로 멀리 바다가 보인다. 고개를 들면 시야를 가로막는 사물이 없이 오로지 막막한 바다뿐이다. 해안도로 중간중간에 차를 세워둘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일단 가장 높은 지점인 칠산정까지 이동하는 것이 좋다.

칠산정 앞에는 바다에 다가갈 수 있는 생태 탐방로가 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 아래로 난 계단을 내려가면 암초와 자갈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가 보인다. 산책로는 노을전시관까지 이어진다. 노을전시관은 저녁노을을 주제로 꾸며진 국내 유일의 박물관이다. 바다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태양을 볼 수 있다.

백수해안도로는 또 다른 일몰 명소인 백암전망대와 영화 '마파도'를 찍은 동백마을을 거쳐 답동 석구미에서 종료된다. 하지만 해안도로 여행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다시 7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10분 정도 내려가면 하사리 염전이 나타난다. 찬바람이 불 때는 소금을 생산하지 않지만, 네모반듯한 소금밭과 외벽을 비스듬하게 지은 창고를 구경할 수 있다. 염전 뒤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덕분에 경치가 이색적이다.

1 칠산정 앞 노을길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관광객.
2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의 불상.
3 염산면의 염전.

함평만에서 법성포까지 차를 몰다 보면 곳곳에서 석양을 관조할 수 있다. 물에 둘러싸여 바다가 호수처럼 느껴지는 함평 돌머리해변에서는 해제반도를 배경으로 낙조가 타오른다.

돌머리해변에서 주포까지 연결되는 약 2㎞의 도로는 함평만 드라이브 코스 가운데 으뜸이다. 부드럽게 굽이도는 길을 따라 무수한 생명이 숨 쉬는 갯벌이 펼쳐진다.

모평마을

아름다운 숲과 이야기가 있는 고을

함평의 내륙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집성촌이 있다. '함평'이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모평마을이다.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촌락에서는 예쁜 돌담과 고풍스러운 한옥, 웃음을 자아내는 벽화를 만날 수 있다.

1

모평마을의 중심에는 수령 500년이 넘은 노거수가 있다. 둥치의 둘레는 5.5m, 높이는 13m에 달하는 느티나무다. 이 고목은 모평마을이 파평 윤씨의 씨족 촌락이 될 무렵 심어졌다. 산자수명한 마을에 정착한 인물은 고려 공민왕 대에 태어난 윤길이다. 황해도에 거주하던 그는 91세의 고령에 제주도에 귀양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모평마을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려한 자연에 빠진 노옹은 아예 눌러앉아 여생을 보냈다.

마을에는 느티나무 외에도 아름드리가 많다. 해보천을 따라 팽나무와 왕버들 등 나무 4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방풍림이다. 바람막이가 주된 목적이지만, 보호림은 세월이 흐르면서 신록과 녹음이 인상적인 가경이 됐다. 지난해에는 산림청과 생명의 숲 등이 정한 '아름다운 숲'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숲은 느티나무 건너편에 위치한 한옥 다실인 '영양재'(潁陽齋) 뒤편에도 있다. 대나무와 차나무가 군락을 이뤄 '죽림 차밭'이라고 일컬어진다.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아 항상 청량하고 상쾌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삼림 사이로 산책로가 나 있는데, 천천히 거닐면 30분 정도 걸린다.

모평마을은 들르기보다 묵어야 할 곳이다. 한 세기 전에 지어진 고가인 모평헌(牟平軒), '웃음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의 소풍가(笑豊家) 같은 한옥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다. 방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그윽하고, 분위기는 고졸하다. 한옥은 내부가 현대적으로 보수돼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

한옥이 모여 있는 모평마을에서 송산저수지를 지나면 산내리 원산마을에 다다른다. 4㎞쯤 떨어진 두 곳을 묶어 흔히 '모평권역'이라고 통칭한다. 원산마을에는 골목마다 익살스러운 벽화가 그려져 있다.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는 모습과 마을 지도가 흥미를 끄는데, 할머니마다 '뽀뽀'나 '왕초' 같은 별명이 붙어 있다. 마을 한편에는 자그마한 예술 공간인 잠월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에서는 연중 기획전이 열린다.

함평의 전통적인 모습은 모평마을에서 자동차로 30분이면 닿는 고막천 석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로 여말선초에 건설된 민간 지역 최고(最古)의 돌다리다. 전설에 따르면 13세기에 한 고승이 도술로 만들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보수를 하면서 본래의 멋스러움을 잃었으나, 여전히 커다란 돌을 정교하게 짜 맞춘 공력이 남아 있다.

2

3

4

5

1, 4 모평마을에는 하룻밤 머물 수 있는 한옥이 많다. 2 원산마을에 그려져 있는 벽화. 3 잠월미술관. 5 다실로 쓰이는 영양재. 6 항수를 불러일으키는 고막천 석교.

6

남도의 음식
이것이 진짜 봄맛이로구나

신선하고 좋은 식자재는 그 자체로 훌륭한 요리가 된다. 무안에서 영광에 이르는 지역에는 바다와 갯벌, 염전과 전답이 있어 사계절 다채로운 재료를 구할 수 있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제철인 산물이 유독 많다.

초봄 법성포에서는 독특한 광경이 연출된다. 상점마다 줄줄이 엮인 굴비가 주렁주렁 내걸린다. 조만간 밥상에 오를 굴비의 수는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크기는 성인 남성의 주먹만 한 녀석부터 장뼘보다 긴 것까지 제각각이다. 몸통이 단단히 옭매인 모양새가 처량하면서도, 쳐다볼수록 입에서는 군침이 돈다. 짭조름한 생선살을 고봉밥에 얹어 먹는 상상을 하게 된다.

굴비는 빙산의 일각이다. 영광에는 9미(味), 무안에는 5미가 있다. 함평에도 선짓국 비빔밥, 보리새우 같은 생소한 음식이 적지 않다. 이틀이나 사흘 동안 여행하다 보면 무엇을 맛볼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별미가 많다. 2월 말과 3월 초는 낙지와 석화가 끝물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맛이 떨어진다. 이때는 풍성한 해산물을 뒷받침하는 해초와 채소가 식욕을 자극한다. 바다 향기를 머금은 감태와 노지에서 겨우내 기른 봄동이 일품이다.

낙지

국내에서 소비되는 낙지 10마리 중 9마리는 수입산이다. 식당에서 먹는 낙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다. 비싸고 귀한 국산 낙지의 절반 이상은 전라남도에서 난다. 갯벌이 발달한 무안 역시 손꼽히는 낙지 산지다. 무안읍 버스터미널 옆에는 식당이 밀집한 낙지 골목이 있다. 낙지와 채소에 초장을 넣고 버무린 초무침, 낙지와 갖은 재료를 함께 끓인 연포탕, 낙지를 넣은 비빔밥 등 모든 메뉴에 낙지가 들어간다. 낙지를 돌돌 말아 매콤한 양념을 바른 '낙지호롱', 낙지를 잘게 썰고 참기름과 깨를 뿌린 '낙지탕탕이' 같은 음식도 있다.

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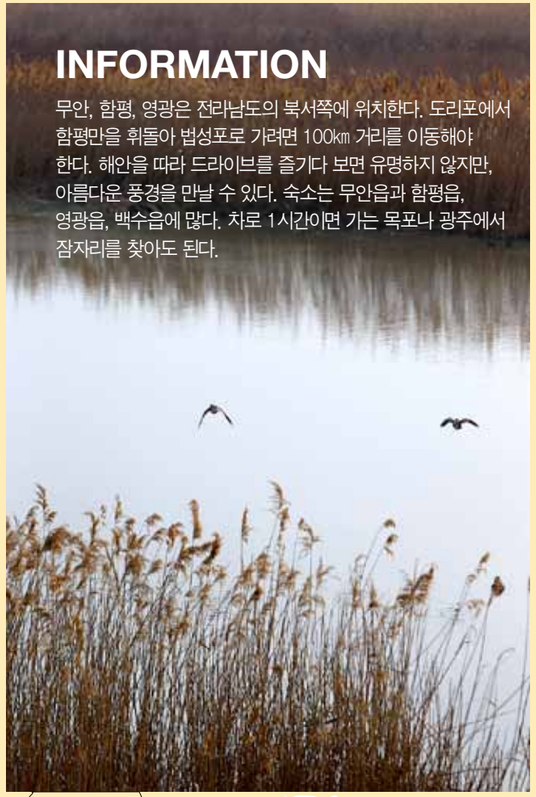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인 뒤 말려 만든다. 과거 법성포 인근에서는 조기가 많이 잡혔으나, 오늘날은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법성포가 굴비의 명산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유는 '소금'과 '바람'이다. 법성포에서는 염장할 때 백수해안도로 남쪽의 천일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을 사용한다. 또 봄날의 기후가 조기를 말리기에 적당하다. 법성포에는 굴비 식당이 몰려 있는데, 대개 정식을 판매한다. 꾸덕꾸덕하고 짭짤한 보리굴비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굴비 구이, 감칠맛이 밴 조기찌개가 갖가지 반찬과 함께 나온다.

숭어

산란 시기는 생선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물고기는 알을 낳기 전까지 몸을 살찌우기 때문이다. 숭어는 여름이 오기 전, 보리가 익을 즈음까지 맛있다. 요새는 12월부터 이듬해 2~3월 사이를 제철로 친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숭어에 대해 "맛이 좋고 짙으며 물고기 중에서 제일이다", "개펄 진흙이나 흐린 물이 아니면 잡지 못한다"고 적었다. 갯벌이 많은 함평만에서는 숭어 잡이가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해제반도의 끝에 있는 도리포가 명성이 높다. 보통은 회로 즐기는데, 살집이 크고 차져서 한참을 우물거려야 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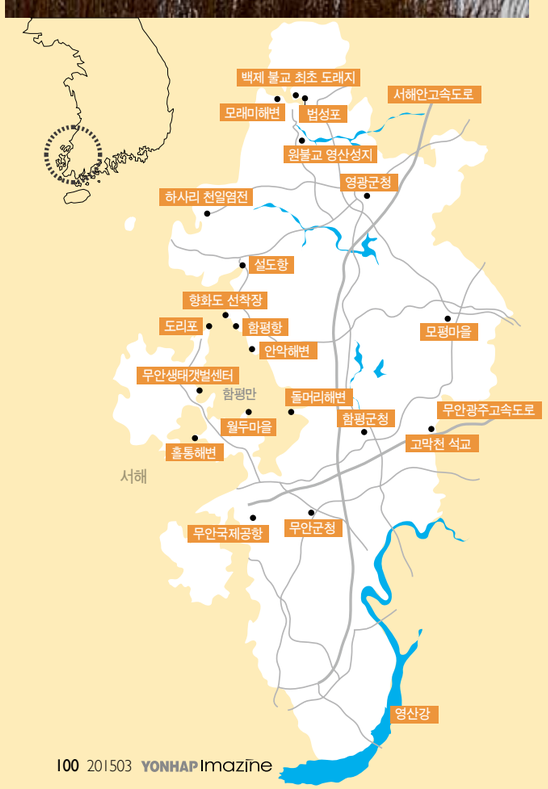
소고기

함평은 무안과 영광처럼 바다와 접해 있지만, 해산물보다 소고기가 더 알려져 있다. 읍내 오일장에는 지금도 우시장이 선다. 한때는 함평 우시장이 전남의 소 값을 결정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다. 당일 도축한 소고기는 육회로 맛볼 수 있다. 참기름과 배, 갖은 양념을 넣고 버무린 육회보다는 얇게 저민 '생고기'가 일품이다. 생고기는 보통 참기름을 살짝 두른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함평의 한우 식당에서는 빠짐없이 선짓국을 내놓는데, 먹음직스러운 선지가 낙낙히 들어 있다.



INFORMATION

무안, 함평, 영광은 전라남도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도리포에서 함평만을 휘돌아 법성포로 가려면 100㎞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유명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숙소는 무안읍과 함평읍, 영광읍, 백수읍에 많다. 차로 1시간이면 가는 목포나 광주에서 잠자리를 찾아도 된다.



무안 가볼 만한 곳

1 회산 백련지

무안에서 가장 이름난 관광지다. 일제강점기에 농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해 평평한 땅의 흙을 파내 만든 저수지인데, 1950년대 백련을 심기 시작해 동양 최대의 자생지가 됐다. 새하얗고 소담스러운 연꽃은 7월부터 9월까지 피어난다. 절정은 8월로, 이때 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안개가 깔린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다.

2 영산강 느러지

무안의 동쪽 경계는 영산강이다. 담양 용추봉에서 발원한 강은 호남의 대지를 적신 뒤 바다로 흘러간다. 몽탄면 이산리에는 강을 향해 튀어나온 땅이 있다. 영산강 2경인 느러지로, 전형적인 물굽이 지형이다. 간너편 나주 쪽의 전망대에 오르면 휘어 나가는 물길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전망대의 높이는 안동 부용대나 정선 병방치에 비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3 조금나루해변

해제반도 남쪽으로도 무안의 해안은 계속된다. 조금나루해변은 무안공항 서쪽에 위치한다. 4㎞에 이르는 긴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이 특징이다. 조금나루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톱머리해변이 있다. 이곳 역시 하얀 모래사장과 해송이 조화를 이룬 풍경이 인상적이다.

4 승달산

해발 333m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를 내려다볼 수 있다. 중국의 한 스님이 제자 500명과 함께 찾아와 수행을 하다 도를 깨우쳤다는 연유로 승달산(僧達山)이라 불린다. 목포대학교나 청계제일교회, 월선리가 산행의 출발점이다. 목포대를 기점으로 순환하는 코스가 약 4.2㎞이다.

함평 가볼 만한 곳

1 꽃무릇공원

용천사(龍泉寺)로 들어가는 초입에 자리한 공원이다. 9월이면 붉고 고혹적인 꽃무릇이 만개한다. 꽃무릇은 수선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공원에는 구름다리, 야생 차밭, 대숲, 정자 쉼터를 거치는 산책 코스가 있다. 한 바퀴 도는 데 40분 정도 걸린다. 9월에 이틀 동안 축제가 펼쳐진다.

2 용천사

조계종 백양사의 말사로 백제 무왕 대인 600년에 창건됐다고 전한다. 사명(寺名)은 서해로 통하는 샘에 살던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됐다. 조선시대에 여러 차례 중창됐으나 정유재란에 소실됐고, 한국전쟁 때도 화마를 입었다.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이 남아 있고,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이 있다.

3 함평자연생태공원

어린이의 생태 체험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나비와 곤충의 표본이 진열돼 있는 전시관과 애벌레, 춘란, 자생난 등 주제별 전시관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근에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문을 열었다. 국내 최초로 뱀을 주제로 꾸며진 이 공원에서는 아나콘다, 능구렁이, 살모사 등을 볼 수 있다.

문의 www.ecopark.or.kr, 061-320-3514

4 자산서원

정개청과 그의 동생인 정대청을 기리는 서원이다. 나주에서 태어난 정개청은 1589년 정여립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으로 시작된 기축옥사에 연루돼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 1678년 사액을 받았으나, 당쟁으로 인해 훼철과 존치가 반복된 특이한 역사를 경험했다. 정개청의 문집인 '우득록'(愚得錄) 목판이 소장돼 있다.

영광 가볼 만한 곳

1 불갑저수지

영광군청에서 5㎞ 떨어진 불갑저수지는 전남에서 가장 넓은 저수지다. 수변을 따라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수변공원은 영광 9경 중 하나이다. 탁 트인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풍력 가로등이 있다. 저수지에 들렀다면 불갑사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과 천연기념물인 참식나무를 살펴볼 수 있다. 불갑사가 있는 불갑산은 함평, 고창에 비견되는 꽃무릇 명소다.

2 송이도

영광 칠산바다에는 여러 섬이 떠 있다. 송이도는 소나무가 많고 생김새가 사람의 귀를 닮았다는 섬이다. 1㎞에 달하는 몽돌 해변과 모래 해변이 있다. 피서와 야영을 하기에 좋다.

3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와 숲쟁이 공원

법성포는 지명에 불교를 의미하는 법(法), 마라난타 성인을 뜻하는 성(聖)을 쓴다. 백제의 불교가 이곳을 통해 들어왔다고 유추할 수 있는 증거다. 법성포 서쪽에는 거대한 불상과 전각이 있는 유적지가 있다. 중국과 인도의 불교문화가 혼재돼 있는 듯한 최초 도래지 북쪽에는 숲쟁이공원이 자리한다. 완만한 비탈에 수령 100년이 넘는 느티나무 70여 그루가 있고, 봄에는 색색의 꽃이 핀다. 공원에 오르면 법성포를 굽어볼 수 있다.

무안, 함평, 영광의 봄과 여름 축제

나비대축제

'축제 홍수'의 시대에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행사로 평가받는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했으며,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천 수변공원 등에서 5월 1일부터 열흘간 개최된다. 나비·곤충생태관과 자연생태관, 다육식물관, 친환경농업관 같은 전시관이 설치되고, 나비 날리기와 미꾸라지 잡기 등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이밖에도 다양한 기념 공연이 열리고, 특산물 판매장과 시골 장터가 운영된다.

목포대학교 벚꽃축제

목포대는 무안 청계면에 있다. 캠퍼스에는 벚나무가 늘어서 있는데, 4월 초면 개화한다. 이 기간에 이틀 정도 축제가 개최된다. 벚꽃을 구경하고, 젊은이들이 선보이는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목포대 외에도 무안읍에서 해제면으로 가는 도로에서도 화려한 벚꽃을 볼 수 있다.

법성포 단오제

500년 동안 지속된 서해안 최대의 단오 축제로 중요무형문화재이다. 음력 5월 5일을 전후해 숲쟁이공원에서 벌어진다. 법성포는 세곡을 관리하는 조창이 있었고, 봄까지 조기 파시가 열려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단오제 기간에는 당산굿, 용왕제는 물론 선유(船遊)놀이, 씨름, 국악 경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가 마련된다. 올해 음력 5월 5일은 6월 20일이다.